

“많은 탈북 아이들 꿈이 동사무소 직원… 주민증 받을 때 가장 기뻐대요”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

B1면에서 계속

◇“주민등록증 주는 동사무소 직원 되고 싶어요”

– 탈북 청소년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있나.
“동사무소 직원이라는 애들이 꽤 있다. 신분증이 없어 감금당하고 고생했던 아이들이다. 학교 가고 직장 갖고 결혼하는 일상이 이 아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었다. 안전하게 보호받는 한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기적이다. 주민등록증은 그것을 상징한다. 자기가 가장 기뻐던 순간이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였으니, 주민등록증을 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다.”

여명학교의 교육법은 특이하다. 수업 시간은 45분, 일반학교보다 5분 짧다. 2교시가 끝나면 10분간 ‘업간(業間) 체조’를 하고 매주 금요일 오전엔 남산을 한 바퀴 뒀다. 다들 체력이 약하다.

– 영양 상태가 부실해서인가.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가 뼈가 자주 부러진다. ‘고난의 행군’ 때 태어났거나 혹은 그때 갓난아기였던 학생일수록 심하다. 그래서 수시로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간다.”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 사망 이후 자연재해 등이 겹치면서 식량이 부족해져 북한 주민 수십만명이 굶어 죽는 시기이다. 1996~97년 절정을 이뤘다.

대안학교 설립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임대 건물에서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없었다. 6년간 줄기차게 싸웠고 결국 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 여명학교가 고등학교 과정을 인가받았으니 아이들에게 좀 여유가 있겠다.

“학력을 인정 못 받으면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단순 암기하는 것이라 시험이 끝나면 다 잊어버린다. 하지만 이제 이 학교에 다닌 것만으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남한 적응 교육도 할 수 있게 됐다.”

– 남한 적응을 위한 교육 과정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나.

“북한에선 스포츠를 가르칠 때 ‘이기는 게 도덕’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승리를 위해 땀을 흘린다. 그런 아이들에게 체육 활동뿐 아니라 규칙과 스포츠맨십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걸 모르고 통일 시대를 맞으면 교육은 큰 혼란을 겪을 거다.”

– 이 학교가 통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중국에서 탈북자 돕는 일을 했을 때 통일이 곧 온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현장에선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축이 발달한다. 탈북자 학교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여명학교가 갈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탈북자 중 일부만 북한에서 마친 교육 과정을 인정받고 있고, 여명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교원 인건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 어린시절… 빈민 출신, 어머니의 인정(人情)을 물려받다

조명숙 교감은 자신이 빈민 출신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돈을 벌지 못했다. 방 하나인 판잣집에 여섯 식구가 살았다. 학교

에 들어가서야 남들은 하루에 밥 세 끼를 먹는다는 걸 알았다.

– 세상에 대해 적대감도 컸을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 때마다 우리 동네가 TV에 나왔다. 대통령 후보가 저소득층 거주지를 방문해 운동화를 주고 갔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엔 신기하고 좋았지만 클수록 자존심이 상했다. 반항도 했고 방황도 했다. 공부는 당연히 못했다.”

그가 열살 때쯤 어머니는 막걸리 장사를 했다. 막걸리 한 잔에 200원 하던 시절이다. 시인 천상병이 단골이었다. 어머니가 아플 땐 어린 딸이 대신 장사를 했다. 어머니는 딸이 술 파는 것이 싫어 그가 중학생이 되자 가게를 접고 공장에 취직했다.

– 어머니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

“살림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어머니는 걸인이 오면 항상 따뜻한 밥을 해줬다. 내가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구멍가게를 했는데 그때도 물건 대주는 사람, 우체부에게 모두 밥을 해 먹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왜 그러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나중에야 그게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방법이란 걸 알았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기질은 어머니를 닮았나 보다.”

그가 어렵게 대학을 간 건 어머니의 비수 같은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가 고3 때 어머니는 딱 한마디 했다. ‘나처럼 고생하며 살지 않으려면 대학에 가라.’ 이 말이 가슴에 꽂 박혀 삼수 끝에 단국대 한문교육학과에 합격했다.

대학 3학년 때 집으로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게 그의 인생을 바꿔놨다. 어느 날 무심코 전화를 받았더니 외국인이었다. 그가 떠들떠들 영어를 하자, 그 외국인은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꼭 도와달라고 했다. 그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세상엔 자신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활동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 어떤 일을 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을 못 받았다. 이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도록 데모도 많이 했다. 2~3년 뒤 이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은 3년 소급 적용이었다. 이미 모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찾아 동료들과 함께 동남아 각국을 돌아다녔다. 나는 필리핀에 가서 수십명을 찾아냈다.”

◇1997년 결혼… 신혼여행 때 만난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돕는 일이 4년쯤 됐을 때 동료 활동가 이호택씨와 결혼했다. 신혼여행지는 중국. 탈북자와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 신혼 여행지를 중국으로 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조선족 상대 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도 비자가 없어 맘대로 들어올 수 없는 시대였다. 이걸 이용해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사기 치고 돈만 챙겨 달아나는 사건들이 많았다. 남편을 중심으로 2년 정도 역력한 사연을 접수하여 해결하는 일을 했다. 신혼여행 7박8일 중 절반은 여행하고 나머지는 조선족을 만나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으로 간 거다.”

– 그런데 어쩌다 탈북자를 만나게 된 건가.

“조선족 동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지난 19일 조명숙 교감이 남산이 내다보이는 여명학교 교실 창가에 앉아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언젠가 남북한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덕훈 기자

상처 많은 애들에게 희망을…

수업하다 울음 터뜨려요

보위부가 가족 잡아갔다고…

北과 실시간 휴대폰 되니

애들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차인표씨, 형부라고 불려요

탈북자 북송 반대 집회 때

바로 동료들과 달려와줬죠

차인표·신애라 부부는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분들



정경원 기자

弱者 돕는 건 ‘어머니 DNA’
어머니는 판잣집 살면서도

걸인에 따뜻한 밥 대접했죠

어려운 사람 못보는 기질을

제가 물려받았나 봅니다

이 있는데 꼭 만나달라고 했다. 솔직히 북한 사정은 잘 몰랐고, 그저 몇 명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황하고 충격을 받은 거다.”

–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죽음의 그림자가 붙어 있는 모습들이 탈가. 굶어 죽는 가족을 지켜본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자 중 누구를 위해 일할지 선택하는 상황이 된 건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성폭행·구타·산재로 고통받는 걸 보면 늘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도왔다. 그런데 탈북자는 좀 달랐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남의 일 같지 않았다. 6·25 전쟁 때 우리 할머니가 북쪽으로 피란을 갔다면 내가 그 사람일 수 있는 거다. 그냥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여행하러 갔던 부부는 일단 중국에 눌러앉았다. 조명숙과 동료들은 산속에 움막을 치거나 시내에 아지트를 구해 탈북자들과 같이 살았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국 공안이 들이닥쳐 60대 노인을 오랏줄로 묶었다. 누가 봐도 탈북자였다. 얼굴에 기쁨이 하나 없고 웃은 20년도 더 된 낡은 군복이었다.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인간의 눈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몰랐다. 그는 살려달라는 말을 못했고, 나는 살려준다 는 말을 못했다.”

조명숙은 남편과 의논했다. 탈북자 돕는 일에 뛰어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한번 시작하면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일, 상황은 절박했다. 북한 주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 국경을 넘고 있었다.

– 그들을 어떻게 도왔다.

“살게 해주는 거다. 국경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안전지대로 와서 건강 회복하게 해주고, 돈이나 식량을 줬다. 90% 정도는 이런 지원을 받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

– 적잖은 돈이 들었을 텐데.

“결혼 자금도 털어서 썼고 결혼반지도 팔았다. 친구와 지인들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양희창 간디학교 교장은 적금을 갖고, 법률스님, 김진홍 목사 등도 힘을 보탰다.”

– 중국 공안의 단속과 감시도 심했을 텐데.

“외국인 노동자 돕는 일을 하면서 조선족 교포 사기 사건을 접수한 게 1만건이

었다. 우리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다.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 활동은 오래가지 못했을 거다.”

– 그런 단순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참혹한 현실을 한국에 알리기로 했다. ‘통일강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언론에 현장 상황을 전달했다. 이게 보도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도 시작됐다.”

북한과 탈북자들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탈북자들 신원이 공

개되는 바람에 중국에 더 이상 체류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그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데리고 나오기로 결심했다. 그게 바로 1997년 탈북자 13명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 계기였다.

“재밌는 건 외국인 노동자 돕는 일을 할 땐 우리를 보고 좌파라고 하더니, 탈북자 돕는 일을 하니깐 보수 우익이라 하더라. 우리 달라진 게 없고 돕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인데 말이다.”

◇2012년 강제 북송 반대… 차인표는 형부

2012년 국내 언론에 여명학교 학생들이 등장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탈북자 수십명을 북송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연일 열린 것이다. 여명학교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

– 그때 학생들은 왜 거리로 뛰어나왔다.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중에 우리 학생들의 지인이 있었다. 우리 애들이 제일 걱정

한 건 그들이 북송 도중 자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제발 포기하지 말고 살아만 달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자신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 탈북했으니까.”

그는 탤런트 차인표씨를 ‘형부’라고 불렀다. 영화 ‘크로싱’ 시사회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 이후 가족끼리 왕래할 정도로 친해졌다. 그는 차인표·신애라 부부에 대해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분들”이라고 했다.

– 차인표씨가 북송 반대 집회에도 참석

했다.

“한 학생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우릴 돕는다면서 왜 가만히 있느냐’고 울부짖었다. 학교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조심했던 건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집회에 나가기 전 차인표씨에게 ‘형부, 아무래도 애들을 보호하려면 내가 나서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다. 혼자 어떻게 나가느냐고 함께 가자고… 동료 연예인 수십명도 함께 왔다. 형부는 그 이후 비자가 안 나와 중국에 가지 못했다.”

그는 한 가지 꿈이 있다고 했다. 언젠가 남북한 아이들 모두 행복하게 해주는 학교를 만드는 꿈이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다. 애들이 행복한 것. 그건 이념적인 학교는 아닐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인내력 하나만은 끝내주니깐.”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김두규 교수
國運風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중·일 삼국의 산수화가 전시 중이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작품이 당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기창(董其昌·1555~1636)의 ‘연오팔경도(燕吳八景圖)’이다. 동기창은 고위 관료·화가·서예가로서 이름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화론(畫論)은 산수화뿐만 아니라 풍수를 공부하는 이들에게도 중요한 고전이다.

동기창은 중국의 산수화를 북종화와 남종화로 구별 짓고 북종화가들은 단명을 하였으나 남종 화가들은 장수를 하였다라는 주장을 펴다. ‘북종 화가들은 판에 새기듯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그림으로써(각화세근·刻畵細謹) 조물주의 부림을 받게 되어 수명을 손상시킨다. 이에 반해 남종

화가들은 기화위락(寄畫爲樂)을 하여 장수를 한다.’ 기화위락이란 그림에 의탁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뜻인데,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감상하는 것 자체도 즐거움이 되어 심신에 유익함을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종 화가들은 대개 60세를 넘기지 못하였으나 남종 화가 황공망(黃公望·85세), 심주(沈周·82세), 문징명(文徵明·89세), 미우인(米友仁·80세) 등은 모두 80세를 넘겼다. 동기창 자신도 80년을 넘게 살았다. 남종 화가들이 “정신이 온전하고 질병 없이 살다가 간 것은 그림 속에서 자연을 즐기기 때문”이라고 동기창은 덧붙였다.

산수화와 운명의 상관론은 동기창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된 것이 아니다. 동기창



중국 상해박물관 소장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전시 중인 동기창(董其昌)의 ‘연오팔경(燕吳八景)’ 일부

山水畵로 자연을 즐긴 中 남종화가들, 80세 넘게 長壽했다는데…

(장수)

보다 1100년을 앞서 살았던 왕미(王微·415~453)는 자신의 산수화론인 ‘서화(敍畵)’에서 말한다. 산수화란 ‘산수(山水之神)’이며 이를 통해 ‘신명이 강림(神明降之)’하여 사람에게 ‘신명이 전해지는 것(전신·傳神)’으로 보았다. 그런데 왕미는 풍수와 어떤 관계였을까? 중국 정사(宋書) 왕미전(王微傳)에 ‘서화에 능하고 음악·의술·음악술에 밝았다’고 소개되는데, 여기서 음악술이란 풍수를 말한다. 실제 그는 양택(주택) 풍수의 초기 고전인 ‘황제태경(黃帝宅經)’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다. 즉 풍수와 산수화가 들어오는 곳(수충·水衝)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산수화에서 사용

하고 있는 많은 용어는 풍수 용어로부터 유래하고 있다”고 이상해(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단언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산수화가 복을 가져다주는가? 다음은 여러 화론(畫論)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들이다.

‘산수를 그림 때 먼저 큰 주산(主山)을 염두에 두어 천자가 제후들의 조회를 받듯 그려야 한다. 숲과 바위를 그림 때는 종로(宗老·최고 연장자)에 해당되는 큰 소나무를 상징하고 이어서 잡목과 풀 그리고 작은 돌맹이들을 그린다. 물은 빗줄과 같으므로 산에 물이 있어야 활기가 있다. 냇가에 있는 주막이나 가옥은 물이 치고 들어오는 곳(수충·水衝)을 피해야 한다. 수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산은 기복

(起伏)과 고저(高低)의 변화가 있어야 살아 있는 것이며, 흐르지 않는 강은 죽은 것이다. 촌락을 그림 때는 평지를 등장시켜 마치 산간을 등장시키지 않는다. 산간에는 농사지를 땅이 없기 때문이다. 길이 있어야 한다. 길 없는 그림은 사람이 살지 않음을 말한다. 계곡에는 다리가 있어야 하며 사람이나 말이 건너가는 모습이 그려져야 한다. 강에는 배가 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문물이 교류되어야 살 만한 곳이 된다.’

풍수에서 말하는 좋은 땅의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들이다. 일반인들이 복을 가져다주는 산수화를 감상 및 구입하는 데 큰 지침이 되는 말들이다.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